



지난 2일 장성 청림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 과정'의 예비 사무관 306명이 '아곡 박수량과 지지당 송흥의 생애와 공직관'을 주제로 한 박래호 선비학당 학장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장성=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장성 배우자” 전국 브랜드 된 ‘청림’

**청림교육 산실된 ‘청백리 고장’ ▶관련기사 3면**  
공직자·기업직원 등 16000명 체험  
특산품 판매·이미지 제고 부수효과

공직자 비리가 잇따르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직자의 부도덕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며 있는 가운데 장성군이 ‘청림교육의 산실’로 부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교사 등 공직자는 물론 증권사·병원·일반기업 등의 직원들도 ‘선비정신’을 배우기 위해 장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출신 청백리들의 정신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한 현장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또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의 대담한 비리, 고위공직자들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 등에 염증을 느낀 일반인들의 발길도 늘면서 ‘청림’이라는 무형의 콘텐츠를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2일에는 2013년 제3기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 과정’에 참가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무관 306명이 장성을 찾았다. 이들은 박래호 선비학당 학장의 청림 특강을 시작으로 1박2일 동안 조선 3대 청백리로 빛나는 아곡 박수량 선생의 ‘백비(白碑, 비문이 없는 비석) 탐방, 축령산 걷기, 청백 한옥 찾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들을 인솔한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문금주(46) 과장은 “간부 직원으로 가는 초입에 공직자의 기본이 되는 청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게 됐다”며 “교육 참가자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을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향(文鄕)인 장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박수량 선생의 백비를 찾은 예비사무관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이들을 안내한 박기열(59) 부군수는 다른 아곡 박수량 선생의 후손. 박 부군수는 “백비는 박수량의 청렴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조선조 명종이 선생의 청렴함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비문을 새로이 세우라고 한데서 유래한 것”이라며 “유혹의 순간, 말 없이 서 있는 저 백비를 떠올리며 털어버려라”고 후배들을 다독였다.

이들은 편백나무로 가득한 축령산을 찾아 산보를 하며 백비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겼다. 이어 나물과

상으로 저녁을 먹고, 청백 한옥에서 취침에 들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실시된 이 청림교육 코스를 찾은 공직자, 일반기업 직원 등은 3일 현재까지 모두 106개 기관에 1만5856명에 이른다. 이들이 지역을 찾아 속속하고 지역특산품을 구매하면서 지역업체들 역시 6억여원이 넘는 새로운 소득을 올렸고, 장성군은 전국적으로 ‘청림 지자체’로 알려지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자칫 고루할 수 있는 청림이라는 주제를 지금 우리가 왜 중시해야 하는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교육을 받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며 “장성을 찾은 공직자들이 청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김홍호기자 yongho@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광신로1가길 10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불가능해 보이던 8000m급 16좌 등정 16년간 끈질기게 도전하니 이뤄지더라”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3강-엄홍길 대장**

“히말라야 8000m급 16좌 등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한 덕분입니다.”

지난 2일 광주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3층 세미나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세번째 강연자로 나선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신념과 도전정신을 역설했다. <관련기사 2면>

엄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산에 38번 도전해 그중 16번 성공한 것이다. 남파파르바트는 세번째 도전 끝에, 안나푸르나는 다섯번째 도전 끝에 성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목뼈가 180도 돌아가는 큰 부상을 입었고

10명의 동료와 세트를 잃었다”고 말했다.

엄 대장은 또한 “1995년 마캄루 등반을 마친 후 처음으로 8000m급 16좌 완성에 대한 꿈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어쩌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16년간에 걸쳐 도전해 꿈을 이뤘다”며 “이후 네팔 오지에 16개의 학교(휴먼스쿨)를 세우는 새 도전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8년부터 16년동안 히말라야 8000m급 14좌와 위성봉 2개(로체샤르·알통강)를 모두 오른 이후 ‘엄에 성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목뼈가 180도 돌아가는 큰 부상을 입었고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정치·경제·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한 리더십 함양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연구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4주차 특강은 서명숙(사)제주올레 이사장을 초청해 오는 9일 오후 7시 라마다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강운태 시장 “문화전당 2015년 전면 개관돼야”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단계별 개관 논란(광주일보 2일자 1면)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정대로 2015년 초에 전면 개관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시장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화전당이 지난 2010년 개관하기로 계획했으나, 현재까지도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 개관을 있을 수 없으며 2015년 초에 전체개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관시 미진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더라도 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문화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조성위)에서도 이같이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이하 개발원)에 따르면 이날 조성위에서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을 보고하면서 오는 2015년 프리오픈, 2017년 그랜드 오픈 등 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개발원은 현재 콘텐츠 구축계획 등 추진 일정으로 미뤄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민중평화교육원·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를 모두 채우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위에 참석한 한 인사는 “2015년 광주국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

두고 세계인들이 문화전당을 찾게되는 상황에서 부분 개관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알림**

**제40회 光日 보훈대상**

광주일보가 제정한 光日보훈대상이 올해로 40돌을 맞이합니다. 光日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고 포근하게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자립에 성공한 사람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이지의 배우자로서 중상이지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노력한 사람

■접 수 : 2013년 4월 26일(금)까지  
■발 표 : 2013년 6월 6일(목) 광주일보  
■시 상 : 5명(상금 각 100만원 및 부상)  
■시상일시 : 2013년 6월 12일(수) 오후 3시  
■장 소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  
■문 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062-975-6642)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http://art.kjmedia.co.kr | 062. 220. 0541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58 호남예술제

1956-2013 제58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3. 4. 24 | 수 | ~ 5. 24 | 금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 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음악·무용·국악부분 2013. 4. 10 | 수 | ~ 4. 17 | 수 |

미술·작문부분 2013. 5. 13 | 월 | ~ 5. 16 | 목 |

주최 | 61 광주일보 | 협찬 | SAMSUNG 삼성생명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청 | 전라남도교육청